

사회

사교육 1번지 광주 봉선동 '공교육 실험'

학교-학원 '총성없는 전쟁'

문성중 밤 9시까지 야간학습 추진... 학원을 전화 항의

'광주 사교육 1번지' 남구 봉선동에 사교육 존폐를 놓고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 없는 시범 학교'로 지정된 봉선동 소재 문성중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방과 후 야간 학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존권을 위협을 느낀 학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봉선동 학원가에 따르면 봉선동 일대에는 문성중을 비롯한 봉선중, 동아여중 등 7개 중학교에 5천1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는 봉선동 소재 학원은 213개이며, 종사원만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없는 시범 학교'로 지정된 문

성중에서 올해부터 교사와 외부 강사를 투입해 야간학습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전면 금지 방침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문성중을 시작으로 주변 학교가 밤 9시까지 야간 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원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문성중은 23~25일 학부모 총회를 열어 방과 후 야간학습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중은 정규수업 이후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진행하는 안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안 ▲기존대로 정규 수업만을 하는 안 등 3가지 안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문성중은 야간학습을 시행하더라

도 참여 여부는 철저히 학생 자율에 맡기고,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상·중·하' 수준별 반을 편성해 학생의 실력향상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는 반기고 있다. 문성중의 한 학부모는 "학원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면서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만 시켜 준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해 야간 학습 실시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봉선동 학원가는 초비상이다. 학원관계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교육청, 문성중 등에 야간까지 야간학습을 진행하는 안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안 ▲기존대로 정규 수업만을 하는 안 등 3가지 안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문성중은 야간학습을 시행하더라

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봉선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중인 모 학원장은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밤 9시까지 묶어 놓는다면 학원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문성중 류충성 교감은 "일부 학원장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철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겠다"면서 "학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모두 15개교가 '사교육없는 시범 학교'로 지정돼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죄 판결 2명 뒷좌석 탔다 뺑소니범 몰린 60대

광주지법 "CCTV 보니 운전 증거 없다" -누명 벗어

타고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지인이 치어 숨지는 바람에 뺑소니범으로 몰린 60대가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던 배씨가 앞좌석으로 옮겨 차를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잡한 전자·기계장치가 내장된 자동차 특성상 배씨가 차 안에 있었다는 점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5일 나주 시 이창동 모 노래방 앞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느닷없이 후진해 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지인 이모(당시 63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씨를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씨가 사고 후 뒷좌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 CCTV 분석 결과와 배씨가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축사 짓다 사기범 몰려 옥살이 50대

대법원 '전문업자만 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기범으로 몰려 6개월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고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1·무안군 현경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씨가 축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0월 26일 김모씨와 2억1천만원에 축사 건축 계약을 맺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씨가 축사를 지을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비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축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축사 건축에 필요한 골작기 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92일을 복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농업·축산업용으로 건설하는 축사나 창고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조폭행세 갈취 3명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조지폭력배 행세를 하며 친구의 돈을 빼앗은 정모(19)군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친구 김모(20)씨로부터 2시30분께 복귀 오차동 O초등학교 앞에서 김모(20)씨를 불러내 흥기로 위협한 뒤 1천6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친구 김모(20)씨로부터 "김씨가 게임 아이템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자해소동 40대 테이저건 쏜 제압

○흥기로 동생을 위협하고 자해소동을 벌이던 4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고 제압돼 인근 정신병원으로 후송. ○21일 광주남부경찰은 이날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동생(39)을 흥기로 위협하고 자해소동을 벌이던 기모(42)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찰 조사 결과 기씨는 중학교 때부터 조울증을 앓아왔으며, 경찰은 이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테이저건을 1회 발사해 기씨의 소동을 제압.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0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유덕 요양소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포텐사(왼쪽) 승용차가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요양 정산소 턱에 걸려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음주단속 피하려다 3중 추돌 사고

유덕요양소...2명 중상. 지난 20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유덕요양소에서 김모(50)씨의 포텐사 승용차와 윈스톱 승용차(운전자 이모·40), SM3 승용차(운전자 박모·35)가 3중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이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복어 요리 먹은 형제 1명 숨지고 1명 입원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4.93급 완도선적 S호 선장 조모(52·완도군 완도읍)씨 형제가 복어 요리를 먹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씨 형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태워져 고희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조씨의 형(61)은 이송하던 중 숨졌다. 조씨는 얼굴과 양손에 마비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 형제는 지난 19일 완도항을 출발한 뒤 다음날 여수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자 여수 거문도로 피항,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배 안에서 복어 요리를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씨 형제가 복어 독(毒)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복어의 난소와 간장 속에 있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에 중독되면 운동신경과 말초신경이 마비돼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요리사가 조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Large advertisement for 'Seoul High School Exam Institute'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for police officers and various exam preparation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like '251-79591' and '514-4560'.